

PD가 과학을 검증하고, 검찰이 과학을 수사하고...

글 | 이은정 _ 경향신문 과학전문기자 ejung@kyunghyang.com

황우석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를 취재하면서 필자는 과거에 예상할 수 없었던 신기한 경험을 많이 했다. 과학과 관련한 기사가 사회면, 정치면을 장식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과학기자가 과기부나 연구소를 벗어나 방송국을 취재하고, 서울대병원에 드나들며, 검찰 기자실까지 출입하는 신세가 됐다.

과학을 공부하는 PD

2005년 11월말에 열린 MBC PD수첩팀의 기자회견장으로 돌아가보자. MBC의 PD 2명이 MBC 사옥의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각 언론에 발표한다. PD들의 기자회견에 국내 주요 일간지, 경제지, 전문지까지 밀려들어 회의실이 꽉 찼다. 경쟁사인 SBS, KBS도 빠질 수 없다. MB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타 방송사의 카메라가 돌아가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기자회견 내용은 더욱 특이했다. 최승호 PD와 한학수 PD는 “줄기세포 DNA분석 내용에 대해 언론사들이 궁금한 점이 많고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것 같아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당시에는 “PD가 무슨 검증을 했냐”는 분위기였고, 필자도 PD수첩팀의 줄기세포 검사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었다.

“줄기세포를 확인하는 데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체세포와 줄기세포의 DNA 분석을 해서 일치해야 하고요. 다음으로 테라토마 작업, 즉 쥐에게 줄기세포를 찢러 넣어 다른 세포로 변하지 않는지 알아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한동안 여기가 과기부 기자실인가 생각이 들었다. 설명하는 사람은 분명히 PD였는데 과학자들이나 얘기할 법한 수준의 설명을 하고 있었다. 아니, 학술 용어를 쓰는 과학자들보다 오히려 쉽게 내용을 설명했다. 그러나 회의실을 메우고 있는 기자들은 내용을 정

확히 알아듣지 못하는 눈치였다.

PD는 과학을 설명하고 정작 과학담당 기자들은 PD의 설명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눈치 빠른 기자들 사이에서 서서히 황 교수의 연구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된 PD수첩과 황우석 교수팀의 공방은 그 후 우여곡절 끝에 결국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이 조작인 것으로 밝혀졌다.

‘브릭병’에 걸린 생명공학연구실

12월이 되자 황우석 교수가 병원에 입원했다. 병세는 날로 깊어져 연구 의욕이 사라지고 죽도 제대로 못 먹을 정도가 됐다고 한다. 서울대 병원 홍보실은 과도한 취재진의 접촉을 막기 위해 하루 한 차례 정도 황 교수의 근황에 대해 따로 브리핑을 했다. 황 교수의 동료이자 주치의인 안규리 교수는 “황 교수의 몸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걱정이 많았다.

포항공대 생명공학정보센터(BRIC)에는 ‘황 교수 논문 다시보기’ 열풍이 일어났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꼼꼼하게 들여다본 과학자들이 그 결과를 사이트에 올리는데, 하나씩 올라올 때마다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전했다.

줄기세포가 혹여 없을까봐 마음을 졸이는, 이른바 ‘브릭병’도 유행하기 시작했다. 브릭병에 걸린 사람들은 일이 손에 안 잡히고, 밥을 안 먹어도 배고픈 줄 모르고, 밤에는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오지 않는 증세에 시달리고 있었다. 특히 당시 생명공학연구실들은 연구자들이 실험을 하지 않고 인터넷에 매달리는 기현상을 보였는데, 아마도 황 교수보다 이들의 연구 의욕이 더 떨어진 듯했다.

이러한 가운데 이른바 과학단체와 원로 과학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황 교수를 방문한 과기부 장관은 “2

차 검증은 없다”며 “후속 연구결과로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림원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05년 12월 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과총이 발표한 성명의 주요 내용은 줄기세포 논문 검증으로 시작된 국민적 혼란을 걱정하며 과학 검증을 과학계에서 맡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인문학자들이 이해하는 과학

과학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PD수첩이나 브릭의 과학자들이 내놓는 정보를 믿지 않았다. 이미 ‘DNA 핑거프린팅’을 공부하느라 많은 시간을 소비했고, 더 이상의 과학 공부를 원하지 않았다. 그들은 빨리 황 교수가 병세를 회복해 실험실로 돌아가기를 열망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여론을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 인문·사회분야 학자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소 필자가 양심적 지식인으로 생각했던 한 교수님은 “허준도 시체를 해부했다”며 황 박사의 연구에서 우리 부분은 눈 감아줘야 한다는 논지를 폈다. 또 다른 원로 언론인은 황 교수를 이순신에 비유하며 ‘영웅을 죽이는 우리 사회’에 대해 탄식했다.

이들이 일부러 과학적 진실을 외면했다기보다는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는 “과학은 과학이 검증해야한다”는 황 교수의 주장이 더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동안 우리 사회 전체가 과학을 이해하는 데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닫게 하는 대목이다. 신문의 외부 칼럼진을 잘 들여다보면 이른바 ‘문과’와 ‘이과’의 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만약 이공계 교수들이 칼럼진에서 좀더 많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공은 검찰에게

2006년 1월 21일,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논문조작과 바꿔치기

여부를 수사하던 서울지검의 검사들이 서울대 수의대 실험실과 미즈메디병원의 연구소에 들이닥쳤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현장을 방문해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이공계의 실험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검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봐야 할 현상이다.

검찰은 ‘황 교수 사건’에 9명의 검사를 할당하는 대규모 팀을 꾸렸다. 아마도 줄기세포 논문 조작 수준이 아니라 황 교수와 관련된 모든 것을 조사하겠다는 결심이 엿보인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은 세계가 우리 나라를 주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욕이 대단하다고 한다(이 글이 독자들에게 전달될 때는 검찰 수사 결과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았을지도 모르겠다). 그도 그럴 것이 논문 사건을 검찰이 수사한 경우는 전세계에서도 드문 일이라 법학 역사에 남을 수도 있는 의미 있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황 교수 사건을 담당하는 차장 검사는 “과학을 수사하는 역사적인 사건인 만큼 검사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자들은 황 교수 사태를 겪으면서 그들이 배운 원리대로 움직이지 않는 이 사회를 너무 답답해했다. 과학자들은 동양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를 설명하고 이해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절실히 깨달은 셈이다. 이러한 사태가 올 때까지 과학자들은 무엇을 했을까. 아마도 과학만 열심히 공부하면 사회는 저절로 발전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과학계를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검찰 수사가 어떻게 끝나든간에 황우석 교수로 인해 만들어진 ‘황빠 vs. 황까’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㉔



글쓴이는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졸업 후, 서울대 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5년 경향신문사에 입사해 사회부와 경제부 등을 거쳐 현재 과학전문기자로 활동중이다.